

지도자 토론·언행 등 철저한 검증으로

오늘을 잃은 대한민국 해답 찾아야



지도자의 자격

최성환 지음

“지도자의 정신이상 행태는 아래와 같은 때에 발생한다. 후보 때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쥐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하게 변한다. 군주는 영악하다. 그리고 음흉할 정도로 침착하며 또 영리하다. 정치인은 일반 국민보다는 한결 더 영악한 것은 맞다. 영악해지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만하지만 포악해지면 그것은 문제다.”

작금의 박 전 대통령의 처지는 권력의 무상함을 일깨운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상은 어떤 모습일까?

국민이 직접 뽑은 지도자도 벌써 여럿이지만 성공했다고 평가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좋은 지도자상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일지 모른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잠재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지도자를 분별할 기준조차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인 최성환 경희대 외래교수가 펴낸 '지도자의 자격'은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저자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표면적 기록과 신체건강 정보는 물론 기본적인 정신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한 사람의 품성은 언행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무의식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깊은 무의식까지 점검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어렵지만 토론 혹은 언설과 같은 정치활동 중 보이는 언행을 통해 심리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와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맞물려 지도자의 품성과 인격, 정신상태 등을 두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저자는 정신 검증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이자 예방책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지도자를 선출한 결과의 책임은 주권자에게 있다. 저자는 “국민이 튼튼해야 건강한 지도자가 태어나고 국가도 곧게 자란다”며 “우리가 먼저 분별력을 갖추어야 좋은 지도자를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한다.

〈엔길·1만33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자의 일생은 고정관념이 널려 있는 지뢰밭”

그런 여자는 없다

게릴라걸스 지음



원장녀에서 김치녀에 이르기까지 '00녀'라는 이름짓기가 성행한 것이 불과 수년 전이다. 여성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말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한국전의 상처와 제국에 대한 열등감은 미국을 상대로 한 기치촌 여성을 '양갈보'라는 말에 투영했다. 중산층 가정에서 가사를 도맡아 하던 '식모'들은 더러거림과 파괴범으로 몰렸다. 오빠와 남동생의 교육을 위해 공장에 취직한 여성이 '공순이'로 비하되기도 했다.

그뿐인가. 부동산 투기의 부조리는 '복부인'이라는 아줌마에 응축되었고, 여성들이 자가운전이 보편화되면서 '김여사'가 탄생했다. 물론 '김여사'는 '도로의 무법자'로 인식되는 여성운전자로 지칭한다.

근래에 들어선 '맘충'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아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엄마들을 일컫는다.

여성들은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불렸고, 또 불리고 있다. 그럼에도 한 가정을 이끌어온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OECD 국가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가 1위를 기록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여성은 그 부당한 노동착취를 당해 온 숨은 노동자들이기도 했다.

앞서 열거했던 여성들이 처했던 상황을 다시 복기해 보자. 기치촌을 관리, 육성한 것은 (남성) 관리들이었고, 식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이는 남편들이었다. 부



STANLEY KUBRICK'S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1년작 '롤리타' 포스터

동산 투기 열풍은 아줌마가 근인이라기보다 제도의 미비와 정책 당국의 오만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그런데 왜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대중의 원망은 늘 '여자'들의 몫일까?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여성 혐오 이면에 드러난 실제 여성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발간됐다. 뉴욕에서 결성된 페미니스트 행동주의 그룹 게릴라걸스가 펴낸 '그런 여자는 없다'는 고정관념이 어떻게 여성의 삶을 규정했는지 분석한다. 게릴라걸스는 30년 넘게 성차별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를 벌여온 집단이다.

책은 여성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었는지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여자의 일생은 지뢰밭 같은 고정관념들이 널려 있는 지뢰밭이라고 본다.

2장에서는 말괄량이 소녀에서부터 쭉꾸렁 할망구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존재하는 고정관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여성들을 성적으로만 대상화하는 고정관념들을 들여다본다.

“솔직히 난 여자 테니스 선수들에게 왜 몸에 딱 달라붙는 의상을 입는지 모르겠다. 이런 걸로 관객을 끌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아예 벌거벗고 나가라고 하면 될 일 아닌가? 남자 선수들에게 꾸미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 여자 선수들은 끊임 없이 여성임을 증명해야 하는가?”(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4장에서는 현실과 가상 세계를 아울러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이 어떤 포커스를 둔다. 나이팅게일, 마더 테레사에서부터 여공 로지, 롤리타, 매미나치 등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사커 맘이나 여성 임원들처럼 여성이 담당하는 일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살펴본다. 6장에서는 특정 민족이나 종교집단별로 파생된 그릇된 인식을 바비 인형 페르디를 통해 풍자적으로 다룬다.

각 장에는 영미권 고정관념에 대응하는 우리의 고정관념들, 일테면 국민여동생과 롤리타, 노처녀들, 제3의 성 아줌마, 한국의 레즈비언과 신여성들, 한국 페미니스트들의 잔혹사에 대한 분석도 덧붙여져 있다.

마지막 7장에서는 저자들이 그동안 전시해 온 포스터, 스티커 등을 통해 편견, 고정관념에 맞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유머’라는 믿음을 가진 게릴라걸스의 작품들은 성차별적 이슈들과 관련된 사실들을 수집해 그 의미를 비튼다는 작업 속에서도 풍자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후마니타스·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연잉군은 어떻게 왕세제 책봉 받았을까



영조, 임금되기까지

홍순민 지음

영조는 조선의 왕들 가운데 특이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조선의 임금 중 가장 오래 살았을 뿐 아니라 가장 긴 재위 기간을 지냈다. 여기에 공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탓에 궁궐 밖에서 살아본 경험도 있다.

출생의 배경 때문에 영조의 내면에는 적잖은 콤플렉스가 자리했다. 그럼에도 긴 재위기간에서 보듯 그에게는 나름의 정치력이 있었다. 52년간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었지만 평정치를 통해 안정적인 조선을 이루

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비정한 면도 없지 않았다.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여 역사에 비정한 군주라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우리 공궐 이야기’의 저자 홍순민 교수가 영조라는 인간을 깊이 분석한 책을 출간했다. ‘영조, 임금되기까지’는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오늘날 영조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는다.

영조는 여섯 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군’으로 봉함을 받아 연잉군이 됐다. 봉군이 된다는 것은 임금의 아들로 공식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저자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연잉군이 과연 순조롭게 왕세제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어떻게 왕세제 책봉 논의가 진행됐는지 5개의 쟁점을 제시한다.

〈늘와·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70~80대 노인들이 벌이는 유머러스한 범죄 소설



메르타 할머니..

잉엘만순드베리 지음

스웨덴의 베스트셀러 작가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의 '메르타 할머니, 라스베이거스 같다'는 전 세계 16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이다. 지난 2016년 국내 출간된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의 후속작이자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메르타 할머니 시리즈는 70~80대 노인 다섯 명이 주인공인 유머러스한 범죄

소설이다. 사회가 노년층을 취급하는 방식에 불만을 품은 노인들이 강도단을 만들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사회를 바꿔나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인 메르타 할머니와 친구들은 답답한 노인 요양소에서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범죄를 저지른다. 결국 감옥에 들어갔다 오지만 그리 살 만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지명수배된 노인 강도단은 스웨덴을 떠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인 라스베이거스로 향한다. 소설 속에서 메르타는 강조한다. 노인들의 이야기는 오늘의 한국 독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열린책들·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성과와 실패 경험한 후 발견한 인생해답



에고라는 적

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에고는 남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진짜 자신감은 누가 자기를 인정하든 하지 않은 상관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며,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초점을 맞출 줄 안다.” 미디어 전략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라이언 홀리데이가 화려한 성공과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후 발견한

인생 해답을 담은 책 ‘에고라는 적’이 출간됐다.

저자는 열아홉 살에 대학교를 자퇴하고 ‘아메리칸엔페리’의 마케팅 전략가, 베스트셀러 저자, 사업가로 승승장구했지만 모든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방향했다. 그런 인생의 전환점마다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에서 출발한 책이다.

그가 말하는 ‘에고(EGO)’는 심리학적 의미라기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잘못된 믿음이며, 무조건적으로 ‘나’에 매몰된 지나친 자의식에 가깝다는 것이다. 〈흐름출판·1만4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협회 육성/골프투어 지원

화순CC | JNJ | 영광CC | 아크로 | 화순엘리체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보성CC | 디오션 | 함평엘리체 | 제주 | 고향

레저 이용혜택!!
영도라도리조트, 무주로비스콘도, 서해안변산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빌
화순, 속초, 제주, 송두 글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우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외벽 단열방수 | 냉방방비 절감 |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관공시 옥생시공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로 30~40% | 난방비 15~20%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탈런트 이영후**

한국방수시험연구원 02-463008-24호에 의거한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5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불이 시뮬을 타고 번져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참조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방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디디자이너와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www.ipalg.co.kr에서 만나보세요!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